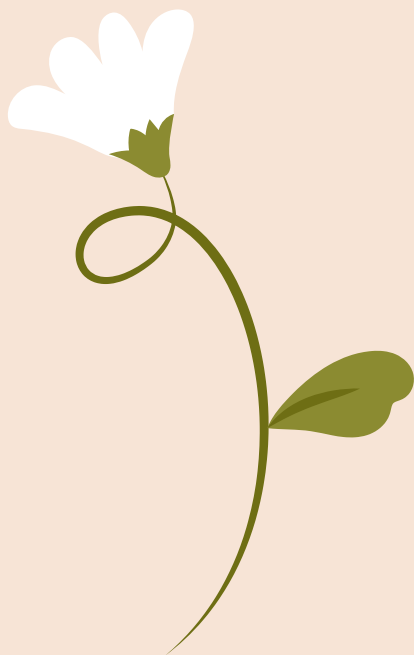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6. 5. 6.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주님 한 분만으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코러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29장 31~35절

다 같이

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말씀 나눔 사랑받지 못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때 인 도 자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복잡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했지만,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가정과 개인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고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본문 31~32절 “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섭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나 남편의 사랑 면에서는 레아가 라헬에게 뒤처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적 통치를 통해 레아의 결핍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는 뜻의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을 넘어,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도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이 끊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기억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본문 33~34절 “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 시므온(‘들으심’)과 셋째 아들 레위(‘연합함’)의 탄생은 레아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레아는 남편의 냉대 속에서도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고’, 그녀가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비록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레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원망보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무릎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5절 “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 유다의 탄생은 레아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입니다. 이전까지 레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라는 인간적인 갈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넷째를 낳으며 그녀는 비로소 남편이라는 대상을 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양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것을 '인간적 갈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 훗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은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삶은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이 고르고, 비교 의식 속에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괴로움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결국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던 손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나는 지금 어떤 '레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2.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느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3. 나는 여전히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1.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2.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3.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4. 베이 지역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5. 베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물질만능주의, 동성애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